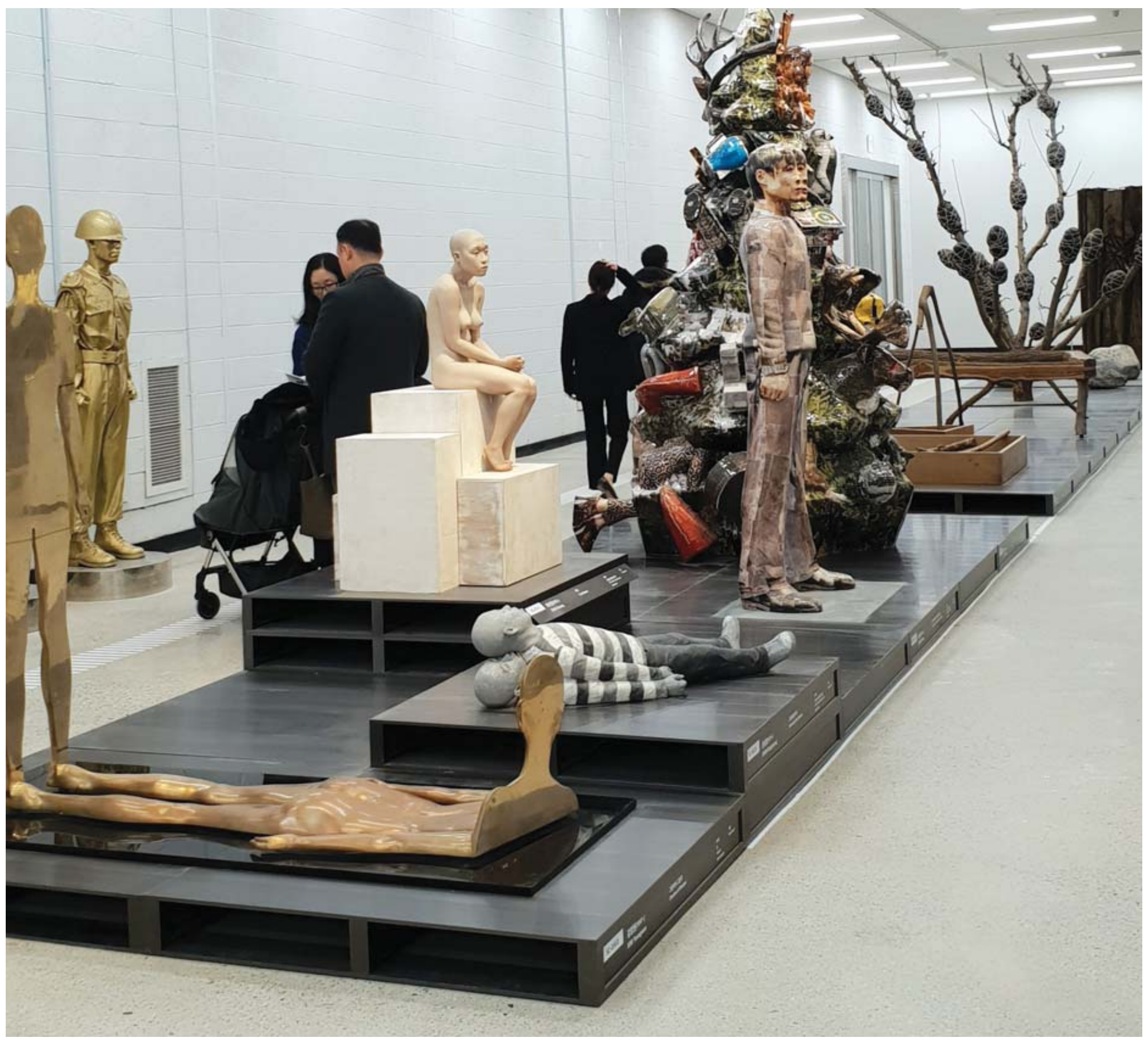
담배공장의 변신…국내 첫 수장고 미술관 눈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을 가다

개방형 수장고서 자유롭게 관람
백남준·이중섭·니키 드 생팔 작품 등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1900여점 둥지
2020년까지 5천점 수장 예정
보이는 보존처리실 등 무료 관람



몇년 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취재를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무엇보다 '전시 공간'이었다. 전시장은 국내 최대 담배공장이었던 옛 연초제조창. 1946년 문을 연 연초제조창은 2004년 가동을 멈춘 후 방치돼 있다 공예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활용중이었다.

요즘 연초제조창이 다시 회자 되는 건, 이곳에 국립현대미술관청주관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7일 문을 연 미술관에는 한달만에 3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국내 최초의 수장형 미술관' 타이틀을 단 공간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형태의 미술관이다.

최근 방문한 미술관은 흥미로웠다. 건물 외관과 굴뚝 등 기존 형태를 유지하며 리노베이션을 진행한 미술관은 기발한 외관으로 눈길을 끄는 여타의 미술관과 달리 하얀색의 심플함이 눈에 띄었다.

청주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 덕수궁, 서울에 이어 네번째로 문을 연 공간이다, 보유작품이 늘어나면서 수장고를 찾고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은 청주시가 무상 제공한 연초제조창을 리노베이션, '개방형 수장고 미술관'으로 꾸몄다. 사업비는 570억원이었으며 매년 80억원을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이중섭, 니키 드 생팔 등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1300여점과 미술은행 소장품 600여점이 청주관으로 옮겨졌고 2020년까지 모두 5000점을 수장하게 된다. 미술관은 수장공간(10개), 보존과학공간(15개) 기획전시실(1개), 교육공간, 조사 연구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람객이 직접 수장고에 들어가 작품을 관람하는 '개방형 수장고'로 운영되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로비에서 만나는 첫 작품, 강익중의 '삼라만상'부터 눈에 띈다. 벽면을 가득 채운 1000여개의 캔버스와 정중앙에 자리한 은색 불상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1층은 개방형 수장고다. 말 그대로 관람객들이 지금까지 은밀한 공간이었던 미술관의 수장고에 들어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작품은 2층 철제 선반 형태의 수납장 등에 자유롭게 배치돼 있다. 온도와 습도 등에 민감한 미술품의 특성상 조각, 공예, 설치 작품 위주로 전시중이다. 니키 드 생팔의 '검은 나나', 이불의 '사이보그 W5', 서도호의 '바닥', 백남준의 '데카르트', 장 드 뷔페의 '집 지키는 개' 등 유명 작품이 눈에 띈다.

보통 미술관이 진행하는 기획전에서 선보이는 작품 수가 한정적인데 반해 이곳에서 만나는 작품은 무궁무진해 차분히 둘러보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안내를 맡은 담당자는 "큐레이터의 시선을 최대한 배재하고 관람객이 일대일로 작품에 접근하며 자기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보관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회화 작품은 2층의 '보이는 수장고'에서 만날 수 있다. 관람객이 유리창 밖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형식이다. 복도쪽으로 전시대를 설치해 이중섭의 '호박' 등 대표 회화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했다.

3층은 정부가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미술작품을 대여해 주는 '미술은행'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600여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방형 수장고와 보이는 수장고 두 가지 형태로 운영중이다. 개방형 수장고는 아트숍의 진열대 처럼 생긴 공간에 놓인 전시공간에서 자유롭게 관람을 관람할 수 있다. 4월 30일까지 미술은행 소장품 중 주목받고 있는 작가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별해 전시하는 '하이라이트 미술은행'(High Light Artbank)이 진행된다.

5층 기획 전시실은 우리가 흔히 만나는 전시장 풍경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이수자·정연두·임흥순 등 15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개관 특별전 '별 헤는 날: 나와 당신의 이야기'가 열리고 있다.

손상된 미술품을 복원하는 보존처리실도 눈길을 끈다. 회화, 조각, 미디어 등 분야별 보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정 시간 대에 관람객이 유화 보존처리 과정과 유기·무기분석 과정을 창 너머로 볼 수 있는 '보이는 보존 처리실'도 운영하고 있다. 로비에서는 미술품의 재료, 보존처리 방법 등을 설명하는 홍보물도 만날 수 있다.

오는 11월에는 특정 작가의 일대기를 가늠할 수 있는 컬렉션을 갖춘 '특별수장고'와 미술도서자료실 라키비움이 문을 연다.

한편 현재 방대한 규모의 연초제조창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공예클러스터, 문화체험 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가 조성중이다. 이곳은 올해 열리는 2019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전시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으로 있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무료 관람. 월요일 휴관. 문의 043-261-1400.

/청주=글·사진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박종해 피아노 독주회

내달 1일 광주 금호아트홀

ⓒ 이상욱

올해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된 피아니스트 박종해(30·사진)가 오는 4월1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금호아트홀은 지난 2013년부터 클래식 음악 기악 분야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30세 미만 연주자를 상주음악가로 선정하고 있다. 그동안 피아니스트 김다솔과 선우예권, 바이올리니스트 박혜윤, 조진주, 양인모, 첼리스트 문태국 등을 배출했다.

이날 박종해는 바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을 만난다. 먼저 바흐 '건반 소나타 마단조'와 하이든 '건반 소나타 마장조'를 무대에 올리고 모차르트 '소나타 17번 내림 나장조'을 연주한다. 이어 베토벤의 소나타 6번과 23번 '열정'으로 후반부를 채운다.

박종해는 2005년 금호영재콘서트로 첫 무대를 가진 뒤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충모를 사사했다. 2009년 '더블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2위를 차지하고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최연소 연주자 특별상(2010), '게자 안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2018) 등을 기록했다. 그는 게자 안다 콩쿠르에서 "음색이 마치 교향곡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여린 피아니시모를 표현해내며, 강한 내면과 진심 어린 감성 표현, 최고 수준의 기량 모두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독일 하노버 국립음악대학에서 아리에 바르디를 사사하고 있는 그는 독일, 스위스 등에서 독주와 협연 무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석 3만원(학생 2만원). 문의 062-360-843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작가 4명 선정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이정기·대구 신준민 등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제19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2019'전(6월5일~8월25일)초대작가로 이정기(광주), 신준민(대구), 이원경(대전), 임봉호(부산) 등 4명을 최종선정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은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의 작품기증과 함께 청년작가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와 미술관 정책이 반영돼 2001년부터 시작된 전시회로 올해 제19회를 맞이한다.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은 국내외 청년작가 중에서 작품 활동이 활발하고 창의성과 실험성이 돋보이는 작가를 지역별로 선정, 매년 전시회를 통해 적극적인 청년작가 육성의 기회를 넓혀왔다.

미술관은 공정한 작가선정을 위해 각 지역 공립미술관 학예연구직 회의를 거쳐 작가 추천을 받고, 공립미술관 학예연구직들과 세미나를 통해 초대작가를 선정했다. 이번 작가 선정에는 광주시립미술관과 함께 부산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학예연구직이 참여했다.

초대작가는 다양한 장르로 실험적이고 개성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45세미만 작가들이다. 이정기 작가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인과관계를 고찰하고 그 간극을 시대의 '유물'이라는 형식을 빌려와 작품으로 제작한다. 이원경 작가는 알루미늄으로 뜨개질해 독특한 형상을 제작하며 대립과 모순 사이 다양한 해석과 상상력을 일으키는 가상공간을 연출한다. 신준민 작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화려함과 공허감을 동시에 줄 수 있는 풍경을 평면화해 다시금 인상의 가치들을 되살리는 작품을 제작한다. 임봉호 작가는 일상의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언어, 설치, 영상 등 여러 매체로 표현하여 무감각해지는 현대인들에게 자극제로서 공감을 이끌어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